

# 중고 한음의 합구개음과 상대 일본어 우(ウ)의 음가 연구

김 대 성\*

---

## 目 次

---

- 들어가는 말
1. 중고 한음의 합구개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재구음 검토
  2. 중고 한음 합구개음의 음가 재구
  3. 상대 일본어 우(ウ)의 음가 추정
- 나오는 말
- 

## 들어가는 말

만요우가나(1)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운(韻)을 사용하는데, 이 때 음위학(소리자리갈, 音位學)적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들리는 모든 소리는 하나의 음([ʔ], [ʊ] 등)으로 처리했으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비슷한 소리 중에서 가장 가깝거나 같은 소리만을 만요우가나자로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니혼쇼키(日本書紀)』 가요 알파군의 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어도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 이전의 표기에 의하여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추정할 때, 비슷하다고 들리는 모든 소리의 운자(韻字) 들을 가지고 일본어를 표기한 것을 하나 하나 설명하기 위해 일본어의 (모음)체계까지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지양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양이란 의미는 첫째, 『니혼쇼키』 알파군 자료와 달리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비슷한 음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운의 중국음을 가지고 표기하려고 했던 자료를, 즉 균일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둘째 중국 중고음 내지 그 이전의 음을 추정한 기존의 재구음을 가지고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추정하기에 앞서 먼저 추정하려고 하는 학자는 다

---

\* 동해대학교 전임강사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한별 일본어 우리말 적기」에 따른다.

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중고음 등을 재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추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국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중고음 등의 재구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비록 일본자료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중고 재구음이라 하더라도 한국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재구음인 경우, 한국자료에 적용시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은 반드시 일본 학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ウ)의 음가는 후설 원순 고모음인 [u]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모리야마 타카시(森山隆)<sup>2)</sup>는 오오노 스스무(大野晋)가 『니혼쇼키(日本書紀)』 가요에 模운1등 설두음자(舌頭音字)만이 쓰인 이유를 3등의 경우 성모가 설면전음(dorso-prepalatals, [t̪, t̪ʰ, d̪, ɲ])이기 때문에 부득이 模운 등자를 썼다는 주장에 대해 『니혼쇼키』 이외의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烏」자가 [키]가 아니라 [우]로 쓰이고 있는 사실과 魂·文韻字가 [우]로 나타나는 예를 근거로 [키]가 [U] 혹은 [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상대 일본어 우(ウ)의 음가를 추정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어의 중고음 중에서 합구개음의 음가를 먼저 추정해보기로 하자.

## 1. 중고 한음의 합구개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재구음 검토

합구개음에 대하여 크게 [w]와 [u]로 보는 설로 대립하고 있는데, 각각의 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칼그렌(Bernhard Karlgren)<sup>3)</sup>은 臻攝 3等 개구운(開口韻, N)과 합구운(合口韻, O)이 각각 欣운과 文운으로 운목(韻目)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different rimes), 文운의 뻐이징음(Mandarine)에서는 「均kūn, 春ch'un, 旬sūn(諄운); 橘kü, 出ch'ü, 律ü(術운); 君kūn, 云yün(文운); 屈kü, 弗fu, 勿wu(物운)」와 같이 합구개음에 의해 핵모음이 탈락하여(swallowed up) [u]나 [ü](=[y])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또한 한국 한자음(Kor), 일본 한음(Kan-on)과 중국의 남방 방언(various Southern dialects)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2) 森山隆(1971) 『上代国語音韻の研究』, 桜楓社. p.244

3) Bernhard Karlgren(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pp.244-248

This point being established : »medial u« in ho k'ou, when there are different rimes in k'ai k'ou and ho k'ou, and »medial w« in ho k'ou, when there are the same rimes in k'ai k'ou and ho k'ou,....(p.245)

와 같이 합구개음이 강한 모음성 개음 「u」(a strong, vocalic medial 「u」)로 추정하였으며,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같은 경우에는(identical rimes) 약한 부수적인 자음성 개음 「w」(a weaker, subordinated consonantic medical 「w」)로 추정하였다.

한편, 칼그렌은 A(寒)-B(山), E(咍)-F(灰)의 1등과 N(痕真欣)-O(魂諄文)의 1, 3등에 개구운과 합구운에 서로 다른 운목이 있는 『꾸양원(廣韻)』과 달리 『치에원(切韻)』에는 운목이 같은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예를 들어 「kân 干」과 「kuân 官」에서 개음이 없는 â와, 개음 u 다음에 이어지는 â 사이의 미묘한 음색의 차이를 『치에원』 시대에는 무시했으나 『꾸양원』 시대에는 인정함으로 해서 차이가 생긴 것 같다. 둘째, 『치에원』 시대에 합구음(合口音)이 약한 자음성의 w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kân 干」과 「kuân 官」을 寒운에 넣었으나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w가 u로 바뀌므로 해서 寒과 桓이 다른 운목이 된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칼그렌 자신은 첫 번째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칼그렌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루 즈웨이(陸志韋)<sup>4)</sup>는 이러한 칼그렌의 [w][u] 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치에원』은 『꾸양원』처럼 개구운과 합구운을 서로 다른 운으로 나누지 않고 같은 운으로 처리했다(《切韻》并不分真諄。)는 사실과, 둘째, 뤼 쩡(呂靜)의 『원지(韻集)』에서 상성(上聲)의 隱운·吻운이 같다는 기록은 평성(平聲)의 欣운·文운이 분운되지 않았다(呂靜《韻集》“隱与吻同”, 想来欣跟文也并不分韻。)는 사실을 들고 있다. 한편, 합구개음에 대하여 루 즈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u跟w 既然没有音素的分別, 又不能确切的表出历史上真实的语音, 二者之中不免要删去一个。我主张一概作 w, 因为在二三四等韵断不能用 u。高氏的上古音表也是把合口的音符一概写作 w。(p.21)

즉, [u]와 [w]는 음소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으며 중국 음운학사의 음성적 사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u]와 [w] 중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며, 2, 3, 4등운에서는 결코 [u]를 쓸 수 없고, 칼그렌의 상고음표(上古音表)에서도 합구의 음성기호로는 모두 [w]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루 즈웨이는 [w]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루 즈웨이가 말

4) 陸志韋(1985) 『陸志韋語言學著作集(一)』, 中華書局. pp.20-22

한 것처럼 합구개음이 [w]이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만요우가나자<sup>5)</sup> 중에서臻섭 文은 합구3등자의 경우 차탁음([m])일 때는 「文聞問勿mo 物mo,moti」와 같이 반영되었지만, 그 밖의 경우는 「雲u,una 鬱utu 群ku 君訓ku,kuni 群gu,guri 粉funi」와 같이 쓰였는데, 루즈웨이의 재구음 [ɪwən]에 의하면 후자의 반영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재구음에 의하면 후자의 반영례도 전자와 같이 모두 [o] 혹은 [ö]로만 반영되었을 것이며, 한국 전승 한자음<sup>6)</sup>의 경우 [언]으로 반영된 예가 최소한 1예 이상은 있어야 하나

[見k<sup>7)</sup>]君若軍鞞군 [羣g]群裙郡군 [影·]鬱蔚熨을/縕盪醞운 [曉h]勲訓葷纒훈 [喻(于u)]雲耘暈  
 輝운 [明m]物물 [非p(f)]分粉盆饋糞[巾奮<sup>8)</sup>]분/扮반 [敷p(f)]払(불)블 [奉b(v)]焚漬漬墳粉紛  
 분/仏불 [微m(m)]文紋蚊聞豐問문/吻문/勿물

와 같이 주로 [운]으로 반영되었으며 소수의 예로 [온]과 [은], 그리고 유일하게 「扮반」이 [언]으로 반영되었을 뿐 [엔]으로 반영된 예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왕 리(王力)<sup>9)</sup>는 상고개음(上古介音)을 「1등: [없음][u] 2등: [e][o] 3등: [i][iu] 4등: [i][iu]」로 보고 있으나, 근거 제시는 없으며, 또한 중고 합구개음을 [u]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거 제시는 없다. 중고음의 합구개음을 [u]로 보고 있는 것은 상고개음을 [u]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똥 통후아(董同龢)<sup>10)</sup>는 합구개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標爲中古合口韻母的介音，一向都依高本漢氏，一等韻爲-u-，二三四等韻爲-w-。現在我們覺得那麼凝訂在理論上和實際應用上都有困難，以後我們一律寫作-u-，以求與現代音的標瀉一致。(p.158)(중고 합구운모의 개음을 나타내는 데 지금까지 모두 칼그렌의 1등운 [u], 2, 3, 4 등운 [w]를 따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추정음은 이론상 그리고 실제로 응용할 때 곤란함이 있다고 느끼므로, 앞으로 우리는 일률적으로 [u]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것은 현대음의 표기와 일치한다.)

이 주장은 현대 표준음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합구개음을 [u]로 볼 것인지 [w]로 볼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

5) 『時代別國語大辭典-上代編-』에 실려 있는 「主要万葉假名一覽表(pp.890-903)」에 의한다.

6) 『훈몽자회』, 『신증유합』, 『천자문』 등에 보이는 한국 전승 한자음을 말한다. 이하 「한국 한자음」으로 줄이기로 한다.

7) 성모 재구음은 토우도우 아키야스(藤堂明保(1980) 『中国語音韻論』, 光生館)에 의함.

8) 「ㅁ」 표시는 폰트가 없어서 부득이 두 문자가 좌우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9) 王力(1991) 『汉语音韵』, 中华书局. p.50

10) 董同龢(1993) 『漢語音韻学』, 文史哲出版社. pp.157-159

한국어의 관점에서 볼 때 꾸앙퉁어(廣東語)의 「瓜 gwa<sup>1</sup>[kwa], 誇 kwa<sup>1</sup>[k<sup>h</sup>wa]」 등과 빼이징 표준어(普通話)의 「瓜 gua<sup>1</sup>[kua], 誇 kuā<sup>1</sup>[k<sup>h</sup>ua]」 나, 상하이어(上海語)의 「光 guan<sup>1</sup>[guan], 困 kuēn<sup>1</sup>[k<sup>h</sup>uən]」 등의 한글 표기는 앞은 「과, 좌」 로 뒤는 「꾸아, 쿠아; 꾸앙, 쿠앙」 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분명히 [w]와 [u]의 차이를 이중모음(diphthongs)과 연모음(連母音, two distinct vowels in adjacent syllables)으로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만, [w]와 [u]를 구별하지 못 하는 언어에서는 [w]나 [u]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일률적으로 표기하겠지만, 적어도 구분이 되는 언어에서는 당연히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구별해서 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한자음과 만요우가나자에 의한 방증이 필요한 것이다.

옌 쉬에첸(嚴學寔)<sup>11)</sup>도 왕 리, 퉁 퉁후아와 마찬가지로 합구개음을 [u]로 보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高本汉把独立的合口韵拟作-u介音, 而把开合口同韵的合口韵拟作-w介音, 这可能是徒劳的. 因为中古的合口介音的来源还不清楚, 各家所构拟的周秦古音, 合口介音出现不多, 亡友罗季光教授认为中古的合口介音在周秦时代可以取消, 而代之以圆唇元音, 这个问题还值得深究. (p.105)(칼그렌은 단독으로 쓰인 합구운을 [u]개음으로, 개구운과 합구운이 같은 운으로 배열된 합구운을 [w]개음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공연한 헛수고인 것 같다 왜냐하면 중고 합구개음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며, 각 학자들이 추정한 주(周)·진(秦)의 옛소리에는 합구개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작고한 친구인 루어 지꾸앙(羅季光)교수는 중고 합구개음은 주진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원순모음으로 대신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다.)

이 주장에는 적어도 중고음을 둘러싼 차용 외국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학자들의 설은 [w]와 [u] 중의 하나만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자.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sup>12)</sup>는 합구개음에 대하여 칼그렌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면서, 다만 止섭의 모든 운만은 합구적 요소가 분명한 후설적인 혀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u]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 현대 중국 방언음에서 止섭에 속한 운들은 순음성모자의 경우에도 개구음과 합구음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며, 둘째, 일본의 고대 한자 카나 사용법에서 止섭 합구운을 나타낼 때 「ア行・カ行」은 「ヰ・クヰ」, 그 밖은 「スイ・ツイ・ルイ」 처럼 합구적인 요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다만,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합구적 요소가 그 당시 중국어에 있었는지, 일본에 전래되어 생긴 것인지에

11) 严学寔(1990) 『广韵导读』, 巴蜀书社. pp.104-106

12) 有坂秀世(1955) 『上代音韻攷』, 三省堂. pp.269-276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리사가 히데요의 주장은 한국 한자음에 대한 인식 부족과 止섭 이외의 합구운에 대한 만요우가나자의 반영례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연구의 결여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우도우 아키야스(藤堂明保)<sup>13)</sup>는 특별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없이 합구개음을 [u]로 보고 있으며, 코우노 로쿠로우(河野六郎)<sup>14)</sup>는 元, 巖, 龐운만을 [w]에서 [u]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칼그렌을 따라 [w]([<sup>w</sup>])와 [u]([<sup>u</sup>])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 한국 한자음에서 元운은 [원]으로 반영되었다. 둘째, 일본 한자음에서 [ヲン](遠ヲン煩ボン)과 [ワン](願グワン万マン)으로 나타난다. 셋째, 만요우가나에서는 [フ](袁遠怨), [フ](番蕃煩), [フ](煩)와 [ハ](幡潘番), [マ](万万)로 나타난다. 넷째, 중국 남부 방언인 후쩌우(福州)에서는 [uon, uən]이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여, [w]보다는 [u]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똑같은 근거로 예를 들면 止섭 脂운3등 합구의 경우 한국 한자음에서

[見k]龜귀 츨구 [溪k]橫래 [羣g]蕘래/遼규 [喻j(于)]位위 [來]藥墨淚류 [疎]檳최

와 같이 「檳최」의 [오] 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에 [위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과 만요우가나에서 「位wi 追tu 蕘nu 類ru」와 같이 이미 합구개음을 반영한 「位」를 제외한 세 자가 모두 [ʷ]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쩌우(福州) 방언<sup>15)</sup>(괄호 안은 빼이징음임)에서 예를 들면 「墨[luei]([lei3]), 類[luei]([lei4]), 淚[luei]([lei4]), 醉[tsuei]([tsuei4]), 翠[tsʰuei]([tsʰuei4]), 雖[tsʰuei]([suei1])」 등으로 [u]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脂운 합구를 [i<sup>w</sup>]([<sup>ㅍ</sup>i])로 추정하여 합구개음을 [ʷ]로 보고 있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박병채<sup>16)</sup>는 합구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注)에서

현대 언어학에서 볼 때 개합의 개념은 원순성 여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 Karlgren교수는 이 합구적 요소로서 -u-와 -w- 둘을 세우고, 전자는 강모음(forte)으로 주로 1등운에, 후자는 약모음(faible)으로 주로 2등운에 사용하고 있다(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p.616 및 中訳版 p.465 참조). 그러나 이들은 상보적 분포에 있어서 그 환경에 지배되므로 합구적 요소로서는 하나의 -w-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와 같이 합구개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합구개음을 [w]로

13) 藤堂明保(1980) 『中国語音韻論』, 光生館

14) 河野六郎(1993) 『河野六郎著作集 第2巻』, 平 厓社, pp.122-123

15) 北京大学中国语言文学系语言学教研室編(1989) 『汉语方音字汇』, 文字改革出版社, pp.159-162

16) 박병채(1986)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부, p.109

봄으로 해서 결국 칼그렌의 1, 2등 중운(重韻, double rimes) 핵모음의 장단음설을 인정하여 나의 학위논문<sup>17)</sup>에서

一方、バグビョンチェ(박병채)は、「wá/wǎは韓国漢字音で[오]に、wa/wàは[외]に反映された」と言っているが、これは間違いである。カールグレンの再構音をそのまま認めて、短母音に反映された「wá/wǎ」をバグビョンチェ(박병채)によって調べてみると、「灰wái、皆wǎi、山wǎn、耕wǎng」があるが、これらの韻は[외, 웨, 완, 왕/웁]のようにすべて合口介音を反映しているのである。

와 같이 지적인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합구개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다. 물론 이 검토 과정에서 앞에서 제시한 학자들의 재구음과 근거에 대하여 비판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간단한 언급으로만 끝난 것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나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다.

## 2. 중고 한음 합구개음의 음가 재구

칼그렌은 哈灰(EF)운, 痕真魂諄(NO)운·欣文(NO)운, 寒桓(AB)운 등은 개구나 합구가 서로 운이 다르기 때문에 합구개음이 [w]가 아니라 [u]이다라는 설을 제시한 것은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들 운 중 합구운의 한국 한자음의 반영을 보면, 灰[uai]<sup>18)</sup> [외]·魂[uən] [윈]·諄[iuwn]<sup>19)</sup> [iuwn] [운]·文[iuən] [윈]·桓[uən] [웁]과 같이 桓운을 제외한 나머지 운들은 핵모음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칼그렌의 주장대로 강한 합구개음[u]에 의해 핵모음이 탈락되고 대신에 [u]가 반영되었는데 [외] [윈] [웁]과 같이 [오]로 반영된 이유는, [uai]는 강한 개음에 의해 같은 후설 모음인 [ɹ]이 탈락한 것이고, [uən] 또한 강한 합구성에 의해 [ɹ]이 탈락되었고, [uən]은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 때의 [u]는 바로 고대 한국어의 모음체계에서는 후설 원순모음의 [u] ~[o]를 나타내는 음소로는 [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윈] [윈]의 경우에는 개음 [i]와 중설 핵모음 [w] [ɹ]에 의해 합구개음 [u]가 중설로 이동하여 [ɹ]이 되는데, [ɹ]과 [u]는 각

17) キム・デソン(2000) 「中古漢字音の再構成 - 韓日資料による韻母音を中心 -」 福岡大学. p.181

18) 이하의 재구음은 나의 재구음을 뜻한다. キム・デソン(2000, pp.275-279. 다만 3등개음 중에서 [i]는 [ɹ]로 수정한다) 참고.

19) [w]는 [u]가 중설화한 [ɹ]의 비원순 모음인데, 실제로는 대문자 「M」을 [w]와 같이 뒤집어서 중설화를 나타내는 [-]를 붙인 표기이어야 하지만, 폰트가 없어서 부득이 [w]로 나타낸 것이다.

각 [우]와 [오]로 변별되었기 때문에 [우]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AB·EF·NO운의 칼그렌 설은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만요우가나의 경우에도 「灰1: 陪背珮杯fè 陪每bè 梅每昧妹mè 陪fo 梅mo/徊隈廻we; 魂1: 存鑄zō 本fo 門悶mo 突tu; 諄4: 駿suru; 文3: 雲u,una 鬱utu 群ku 君訓ku,kuni 群gu,guri 粉funi 文聞問勿mo 物mo,moti; 桓1: 惋wo(중고음 이전) 伴半絆泮fa 滿末ma 丸wa,wani」와 같이 순음의 경우에는 합구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그 밖의 성모인 경우에는 [u]와 [o]([ö]도 보인다)로 반영된 것을 보면 역시 강한 합구성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서로 같은 경우(identical rimes)에 칼그렌은 [w]로 추정하고 있는데, [w]라고 한다면 합구성이 현저히 약한데 과연 한일 자료의 반영례에 의해 칼그렌설의 타당성이 여기서도 입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합구운의 한국 한자음(한국 한자음은 편의상 대표음만 제시한다)과 만요우가나자의 반영례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x: 만요우가나의 예가 없음을 나타냄)

3<止攝>: 支3[웨]為萎委wi 支4[위](부분적으로 [유 ㅋ])劑e; 脂[위][웨][윙]位wi 進u 蕤nu 類ru 脂4[윙]; 微3[위](아음·후음)韋威偉謂wi 歸貴ki, [이](순음)

5<蟹攝>: 灰1[외]陪背珮杯fè 陪每bè 梅每昧妹mè 陪fo 梅mo/徊隈廻we; 泰1[외]x; 齊4[예][윙]惠慧we; 皆2[웨]捩ë; 佳2[예]x; 夬2[에][와]x; 祭3[위]衛we; 祭4[예]叡jè; 廢3[웨](唇音[예])[예]穢we

6<臻攝>: 魂1[온]([운])存鑄zō 本fo 門悶mo 突tu; 諄[웬]x; 諄4[운]駿suru; 文3[운]雲u,una 鬱utu 群ku 君訓ku,kuni 群gu,guri 粉funi 文聞問勿mo 物mo,moti

7<山攝>: 桓1[완](아음·후음)[안](설음·치음·순음)惋wo(중고음 이전) 伴半絆泮fa 滿末ma 丸wa,wani; 刪2[완](설음·순음의 예는 없음)八fa; 山2[완]; 元3[원]幡fa 伐ba 万ma 返fe 反fe(중고음 이전) 蕃番fō 煩bō 袁遠怨曰wo 越wo,woti; 先4[연]x; 仙3[원]佻de; 仙4[연]川tu

9<果攝>: 戈1[와]磋sa 座za 波婆幡巨簸播破fa 磨婆魔麼ba 摩魔麼磨ma 和倭浼wa; 戈3[와]迦伽ka

10<仮攝>: 麻2[와]x

11<宕攝>: 唐1[왕]x; 陽3[왕]x

12<梗攝>: 耕2[왕][옥]x(耕2개구음: x); 庚2[왕]x; 庚3[영]x; 淸4[영]x(淸3개구음: x); 靑4[영]x

15<咸攝>: 凡1[엄](순음뿐임) 芝si 法fafu 凡fo,fomu 法ofu

16<曾攝>: 登1[웅][옥][영]弘wo; 蒸3[역]x

여기에서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같은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 한자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같으면서 한국 한자음에서 합구운에 합구음이 반영이 안 된 운(위에 제시한 반영례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음)은 입성운의 예만 있는 蒸3등[역]과 佳2등[애], 仮 4 등인 先·靑운, 重紐 4 등인 祭·仙운, 그리고, 淸운과 純3등인 庚운뿐이다. 물론, 凡운의 경우 [엄]으로 나타나 합구개음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쉬운데, 凡운으로 쓰인 한국 한자음의 예들은 모두 순음뿐이라는 특수한 사실<sup>20)</sup>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렇다면 왜 이들 운에 합구개음이 반영이 안 된 것일까? 蒸3등[juək]은 본래 입성자(후음 청음 [h]과 차청음 [ㄷ뽀임])만이 있기 때문에 [juək]이 되는데 이 때 입성 운미음 [k]에 의해 합구개음이 명확히 들리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佳2등운 [uɨ]은 원순 핵모음인 [ɨ]에 의해 합구개음의 원순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운자에 대해서는 나의 학위논문(p.181)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そこで、これらの韻は核母音が[e][ɛ][æ]系列の音である共通点によって合口介音が脱落したようである。つまり、前舌母音であり、韓国語の母音体系では存在していなかった[e][ɛ][æ]系列の核母音ではない限り、合口介音が脱落しなかったことは合口介音が[w]ではなく[u]であったことを暗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なぜならば、合口介音が[w]であったら、核母音が[ɨ]と推定される支3・4等と脂3・4等は合口介音が脱落した[에][예]などの例もあったはずであるが、実際にはすべて合口介音はしっかりと保ってい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韓国漢字音で合口介音がほとんど反映されている限り、合口介音は[w]ではなく[u]であることは確かである。

둘째, 첫 번째에 지적한 운 이외의 모든 운은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합구개음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 한자음에서 [w]라는 합구개음을 일률적으로 반영했다고 보는 해석이다. 한국어의 모음체계에서 「오」와 「우」가 결합하여 이중모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오·우」와 「어·아·이·여」등과의 결합이다(「와외위위[우:]」 등). 이 이외의 즉, 「오·우」와 「으·우·오」의 결합이나, 「오」와 「어」, 그리고 「우」와 「아」의 결합인 「외」 「워」 등의 예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돈주<sup>21)</sup>와 박 병채<sup>22)</sup>에 의하면 「오·우」가 결합하여 실제로 쓰인 음을 보면, 「요유와외위위왜」 등이 있으며, 여기에 「[유:]」를 추가할 수 있다(支운4등에 부분적으로 보임). 그런데 합구개음을 [w]로 본다고 하면,

20) 합구운의 순음 성모자들이 합구성이 반영되지 않은 예들이 일반적이는데, 이것은 한국 한자음만이 아니라, 만요우거나, 베트남 한자음 그리고 티벳 한자음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고 한음의 성모 재구시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양해를 구하기로 한다.

21)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p.302

22) 박병채(1986)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부. pp.318-319

「와워위왜[유휴]」의 경우 합구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오」와 「우」 어느 것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각각 「워외외[우][요][유휴]」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외」는 예가 없으며, 「워외[우][요][유휴]」는 한국어의 모음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서로 대응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와·워·위·왜[유휴]」는 합구개음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요·유·외·위」가 남는다. 이 네 자로 반영된 운을 보면 「支4[위, 脂3[위][유], 微3[위], 灰1[외], 泰1[외], 齊4[유], 祭3[위], 諄3,4[운], 耕2[외], 庚2[외] (그리고, 개구운에 肴2[요], 宵3,4[요], 蕭4[외]가 있다)」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단지 합구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이들 운에는 예를 들어 支4[유]에는 [요]로, 微3[위]에는 [외]로, 灰1[외]에는 [위]로 반영된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支4와 微3에는 단 1예도 없으며, 灰1에 「桅위」 1예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우리에게 합구개음이 [w]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합구개음 [w]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오」와 「우」를 반영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합구개음이 [w]가 아니라 [u]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는 해석이다. 이것은 첫 번째 해석과 맞물려 있는데, 만일 [w]이었다면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오」와 「우」가 구별이 되지 않고 상당수가 혼용되어 반영되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혼용의 예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대신에 어떤 규칙을 지니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일일이 모든 운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두 개의 운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구운과 합구운의 운목이 같은 「支운3 등[iu<sup>3</sup>]」과 「唐운1 등[uɑŋ]」의 예를 보면,

支: [見k][立支][危鳥]궤/度기 [羣g]跪궤 [影·]萎委위 [喻(于)]為위 [曉]燬毀궤  
 唐: [見k]光脫絃광/郭擲과 [溪k]墳광/鞞篳과 [影·]汪(양)왕/腹蠖확 [曉h]詭황/癩확/[弓広]  
 靑 [匣h]皇篋蝗凰隍 巾皇 蟻黃潢황 獲獲확

와 같이 支운은 주로 [웨]로, 唐운은 [왕]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支운에서 [웨]로 반영된 것은 [iu<sup>3</sup>]에서 전설 핵모음인 [ʷ]와 전설 운미음인 [i]에 의해 개음 [iu]는 실제로는 [iu]가 되면서 3등음이기 때문에 개구 개음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여 [ui]가 [우]가 되고, [ʷ]는 [어]로 운미음[i]는 [이]가 되어 [웨]<sup>23)</sup>로, 또한 핵모음이 약한 [ʷ]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되지 못하여 [위]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唐운 [uɑŋ]은 [u]가 [오]로 운(韻) [ɑŋ]은 [앙]으로 반영되어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각각 [ui]는 [우]로 [u]는 [오]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한국어의 모음체계와

23) [ʷ]가 [여]가 아니라 [어]로 반영된 것은 한국어의 모음체계에 [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웨]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합구개음이 [w]가 아니라 [u]이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u]일 경우에는 [우]로, [u]일 경우에는 [외]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 합구개음은 [w]가 아니라, [u]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합구개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덧붙이면, 한국 한자음에서 합구개음 [u]가 [오]와 [우]로 규칙적으로 구별되어 반영되어 있는데, 이와 똑 같은 현상이 간접적인 자료<sup>24)</sup>인 베트남 한자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베트남 한자음은 한국 한자음에서 합구개음이 [오]로 반영된 경우에는 주로 [o]와 [기]로, [위]인 경우에는 주로 [u]로 규칙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티벳 한자음의 경우, 止섭 합구운의 반영례를 보면 모두 [u](微운3등의 경우만 순음에서 합구개음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로 반영된 것을 보면, 나의 재구음에서 止섭 합구운의 경우 모두 핵모음이 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합구개음에 의해 전설 모음의 핵모음(微운은 [i]임)이 탈락하였다는 사실은 곧 합구개음이 [w]가 아니라 [u]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티벳 한자음의 臻섭의 경우 [un](魂운만 [on][un]으로 나타남)으로 반영되었는데, 현대 티벳어에는 [i,y,e,æ,ɛ,a,o,u]와 같은 모음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a]는 중설 저모음이기도 하나 장모음으로 나타날 때는 [a]와 [a]에 가깝지만 단모음일 경우에는 [e]에 가깝다는 점을 제외하면, 중설모음이 없기 때문에 臻섭의 중고 핵모음 [ɣw, a]가 반영되지 못하고 합구개음 [u]만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만요우가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로 다른 운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魂諄文운의 경우

魂1: 突tu ; 諄4: 駿suru ; 文3: 雲u,una 鬱utu 群ku 君訓ku,kuni 群gu,guri 粉funi

와 같이 [ウ]로 반영된 것을 보면, 칼그렌의 [u]설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운목으로 되어 있는 脂3등운(追tu 蕤nu 類ru)과 仙운4등(川tu)과 같은 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시 같은 운목인 경우에도 합구개음이 [u]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중고음의 합구개음을 [u]로 본다.<sup>25)</sup>

### 3. 상대 일본어 우(ウ)의 음가 추정

24) 여기서 「간접적」이란 뜻은 나는 아직 고대 베트남어의 음운체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어의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티벳 한자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5) 지금까지의 합구개음에 대한 재구에는 한국자료의 치밀한 분석과 만요우가나의 전반적인 분석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학자들은 중국자료의 분석에만 매달린 점은 앞으로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ㄱ]의 음가에 대하여 일본학자들은 어떤 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아리사카 히데요(pp.383-386)는 [ㄱ]에 쓰인 만요우가나자가 모두 중국음의 [u(w)]를 지닌 운자(韻字)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u]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たこむら(古)↔たくむら(俱)・まそみかがみ(十見)↔ますみかがみ(墨)・とが(刀)↔つが(都)・わかぬけのふたまたのみこ(野)↔わかぬけのふたまたのみこ(沼)・あよひ(庸)↔あゆひ(由)・しろく(路)↔しろく(流)」와 같이 같은 단어가 [ㄱ甲]과 [ㄱ]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ㄱ]와 [ㄱ甲]은 서로 가까운 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가까웠다고 했을 경우 [ㄱ]가 [u]에 가까운 [u]이었는지, [o]에 가까운 [o]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모리야마 타카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烏」가 [ㄱ]로 쓰인 사실과 魂운·文운의 만요우가나자가 [ㄱ]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u] 또는 [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모리 히로미치(森博達)<sup>26)</sup>는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서 [ㄱ]를 나타내는 데 虞운 이외의 운에 속한 자가 쓰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밖에는 虞운이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순 후설 협모음의 [u]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의 虞운의 음가는 히라야마 히사오(平山久雄)의 [yu][xu]설의 [u]에 의한 것이다. 오키모리 타쿠야(沖森卓也)<sup>27)</sup>는 성조언어와 곡조음절(曲調音節)이라는 관점에서 나라시대(奈良時代)의 모음체계를 [i e ə a o u]의 6모음체계로 보면서 [ㄱ]를 [u]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아리사카 히데요가 언급한 [ㄱ甲]과 [ㄱ]의 혼용에 대해서는 문헌시대 이전에는 모음의 장단에 의한 변별이 있었으나 그러한 변별이 없어지면서 본래 단모음(短母音)이었던 음들이 이완음이 되었는데, [u]의 경우 [ㅁ]가 되어 [ㄱ甲]에 합류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오오노 스스무(大野晋)<sup>28)</sup>를 비롯하여 핫토리 시로우(服部四郎)<sup>29)</sup>, 마츠모토 카츠미(松本克己)<sup>30)</sup> 등도 모두 [u]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ㄱ]의 음가에 대한 주요 근거는 중국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학자들이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재구음에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과 베트남 한자음, 티벳 한자음도 자료로서 사용한 나의 학위논문의 재구음을 토대로 한 중고음을 가지고 [ㄱ]의 음가를 추정하기로 하겠다

상대 일본어에서 [ㄱ]로 쓰인 만요우가나자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遇攝>

模:烏u都 菟途屠徒图tu都 菟图弩du 奴nu无模mu 蘆盧ru 姥:苦ku 覩tu弩du 怒努nu 暮:汚u素su布

26)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東京 pp.89-93

27) 沖森卓也(1983) 「古日本語の母音体系」 『国文白百合』 14

28) 大野晋(1982) 『仮名遣と上代語』 岩波書店, p.163

29) 服部四郎(1976) 「上代日本語の母音体系と母音調和」 『言語』 5月号

30) 松本克己(1976) 「日本語の母音組織」 『言語』 5月号

步bu

虞:于u紆 句俱区ku隅虞娛愚gu須珠輸殊蕪su殊儒zu敷符fu扶扶bu無mu踰瑜與ju婁u 慶:宇羽  
禹u炬婁ku主数su聚zu甫府輔fu父bu武舞鵠mu庾愈ju 遇:句履[糸勾]ku具遇gu舊zu逗du賦赴fu  
鷺bu務霧mu噏ju屨ru

<流撰>

侯:句ku頭tu頭du樓ru 厚:口ku部bu 候:勾ku豆逗tu豆逗du茂mu漏ru

尤:丘鳩ku求gu周洲州su不浮fu矛bu牟謀mu由遊油ju留流瑠琉ru 有:有u久玖九ku酒su受zu負u  
宥:秀su宿suka,suku授zu富fu留ru

<通撰>

東:通tu 送:夢mu 屋:菊kuku宿suka,suku筑竺tuku,tuki竹tuku福u,fuku服buki目muku

冬:農nu

鍾:濃nu 燭:足suku

<山撰>

仙:川tu

<臻撰>

文:雲u,una群ku君ku,kuni群gu,guri 吻:粉funi 問:訓ku,kuni 物:鬱utu

(魂)送:突tu

諄:駿suru

<止撰>

脂:追tu蕤nu 旨:否fu 至:類ru

<咸撰>

覃:曇dumi

(『니혼쇼키(日本書紀)』<sup>31)</sup> 가요 중에서 알파군은 진하게, 베타군은 밑줄, 알파군과 베타군 둘 다 쓰인 경우에는 진하게와 밑줄로 표시했음)

상대 일본어의 우(ウ)의 음가는 [u]로 추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u]의 음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서도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模운[u]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쓰이고 있다.

模: 烏u都du莖途屠徒凶tu都都莖凶弩du奴nu无模mu蘆盧ru 姥: 苦ku觀tu弩du怒努nu 暮: 汚u素su布步bu

이 자들 중에서 알파군에만 보이는 자로는 「都du 觀tu」가 있는데 이것은 편설음인 설 상음자(舌上音字, 虞운)를 피해 1등의 설두음자를 선택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베타군의 경우에는 「ウ・ス・ヌ・ブル」에도 模운자가 쓰인 것을 보면, 模운의 재구음 [u]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sup>32)</sup> 模운은

31)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1965~1967), 『日本書紀(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姑コ孤コ枯コ胡コ呉コ吾コ蘇ノ都 凶 屠 塗 街 奴ドノ菩ホ謨モ模モ盧ロ乎ヲ烏ヲ呼ヲ鳴ヲ / 烏  
都ツ菟ツ途ツ屠ツ徒ツ 凶ツツ弩ツ奴ヌム模ム蘆ル盧レ ; 古コ祜コ祖ノ土ト覬ト杜ト怒ドノ努ノ弩  
魯ロ塙ヲ / 苦ク觀ツ弩ツ怒ヌ努ヌ ; 故コ庫コ固コ顧誤モ悟モ娛モ素ノ派ノ度トト妬ト渡ト暮モ慕  
モ墓モ路モ露モ / 汚ウ素ス布フ歩ブ

와 같이 58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는 두 가지의 자음으로 쓰인 자가 2자, 청음과 탁음 모두에 쓰인 자가 4자, [ㄱ甲]과 [ㄱ] 두 모음으로 쓰인 자가 13자, 그리고 [ㄱ]만으로 쓰인 자가 9자이기 때문에 [ㄱ甲]과 [ㄱ]만으로 쓰인 비율은 「[ㄱ甲](36자, 80%) : [ㄱ](9자, 20%)」로 압도적으로 [ㄱ甲]으로 쓰인 것을 보면 [ㄱ甲]에 가장 적합한 운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ㄱ]로 쓰인 자가 있다는 사실은 첫째, [ㄱ]의 음가가 고모음인 [u]가 아니라 이완음인 [u]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고대 한국에서의 표기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대 한국어의 [외]는 [u]~[o]를 포괄하는 소리로 [o]에 가까운 소리인 模운은 모두 [오]로 반영되었는데, 이 때의 [u]나 [u]도 나타내는 [외]가 만요우가나에서는 [ㄱ]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한편, [외]의 음가를 지닌 운에는 模운 이외에 侯1 뉘 əd · 尤3, 4 뉘 i3d[i3d] · 東3 뉘 ŋ]이 있는데,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 쓰인 자로는 「樓ru豆逗tu,du(侯운); 牟mu留流ru(尤운); 夢mu(東운)」가 있다. 이러한 운의 자들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ㄱ]의 음가가 [u]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冬운[og]인 「農」이 「ノ」가 아닌 「ヌ」로 쓰인 것은 「宗」이 「ソ」로 쓰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례(異例)라고 할만하다. 다만, 冬운으로 만요우가나로 쓰인 자는 이 두 자에 불과하며, 특히 「農」의 경우는 이미 관용화된 표기법의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운미음 [ŋ]에 의해 핵모음 [o]가 [외]와 같은 음색으로도 들리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ㅍ][ㅍ]계열의 운( [ㅍ]: [ㅍ]의 중설모음, [ㅍ]: [ㅍ]의 이완 중설모음임)은 우(ㄱ)

32)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뿐만 아니라 베타군에도 虞운 설상음자가 쓰이지 못 한 이유는 권설음인 설상음자를 피해 부득이 1등인 模운자를 쓴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模운이 [외]이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 설상음에 [ㄱ]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즉, 설상음은 권설음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체][치][치]를 나타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는 「智知致[手致](知모); 漚漚모」와 같이 설상음자가 [ㄱ]로 쓰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ㅍ]계열을 나타내는 데는 ㅍ계열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제약이 있다. ㅍ계열에는 1, 2등은 없으며 3, 4등만 있기 때문에 부득이 3등인 설상음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ㄱ]의 경우 虞운 설음 즉 설상음자가 [ㄱ][ㄱ]계열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못 한 것은 [ㄱ]로 쓰일 수 있는 운으로 虞운밖에 없었다면 아마도 虞운의 설상음자가 부득이 쓰였을 것이지만, 운모가 [o]가 아니라 [외]이었기 때문에 이완음인 [u] 즉, [ㄱ]로도 쓰일 수가 있는 模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3) 키ム·덴ソン(1998)과 키ム·덴ソン(1999) 참고

**에 쓰이지 않았다.**

[ㄱ]의 음가로 추정할 수 있는 음에는 [u][+][u][+][u][+][w][w]([u]는 모음이 주로 [才甲]으로 반영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외된다)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 중고 음에서 비원순 모음인 [u][+][w]를 지닌 운은 없고, [w]를 지닌 운에는臻섭 真운 3, 4등  $iuwn[iuwn]$ 과 합구의 諄운 3, 4등  $iuwn[iuwn]$ 이 있다 이들 운의 한국 한자음의 반영례를 보면, 真운<sup>3</sup>등은

[見k]巾<sub>진</sub> [疑j]銀은 [影j]駝을 [曉h]鬱흔 [初s]櫛 친 츄 黜 친 [幫p]筆필 [奉b(v)]貧민 [明m]敏민 [微m(m)] 밧민

과 같이 순음이 [인]으로 반영된 사실을 제외하면 주로 [은]으로, 4등은

[見k]吉길 [影j]印因茵姻인/一<sub>츄</sub>일 [喻j(于u)]引蚓인/溢일 [知t]珍珠진 [澄d]陳塵진/軼<sub>제</sub>달 [來l]鄰隣(닌)麟麟(린)栗(닐)築물 [精ts]津進진 [清ts']親친/七[木t]칠 [從dz]尽 蠟燭(신)진/疾질 [心s]辛新薪信訊신/蟋<sub>실</sub> [照l]賑진/碩<sub>실</sub> [曄d]曄진/曄<sub>진</sub> [神d]神신 [審j]伸紳<sub>신</sub>身 晒<sub>신</sub>/室<sub>실</sub> [禪z]臣辰(진)宸晨腎<sub>신</sub>/蜃<sub>순</sub> [日j]人(인)仁(인)刃<sub>인</sub> [日(일)일] [幫p]殯빈/必<sub>필</sub> 賓(빈)鬢(빈)빙 [滂p]匹필 [明m]民泯민/密<sub>밀</sub> [奉b(v)]蘋(빙)擯 木<sub>빈</sub> 牝(빈)牝(빙)

과 같이 [인]으로 규칙적으로 반영되어 [우]나 [오]와 관계가 없고, 諄운<sup>3</sup>등은

[見k]麴<sub>군</sub> [羣g]菌困<sub>군</sub> [喻j(于u)]筠<sub>군</sub> [疏s]蟀<sub>순</sub>

과 같이 [운]으로, 4등 또한

[見k]橘<sub>굴</sub> [喻j(于u)]鷓(안)鷓<sub>훈</sub> [徹t]椿<sub>춘</sub> [點(찰)찰]楯<sub>순</sub> [澄d]棗<sub>툇</sub> [來l]輪<sub>륜</sub> [羣g]輪<sub>륜</sub> [精ts]雋<sub>준</sub> [清ts']鉞<sub>준</sub> [心s]筍<sub>순</sub> 鉞<sub>순</sub>/隼<sub>순</sub> 恤<sub>훈</sub> [言j]求<sub>툇</sub> [邪z]旬<sub>순</sub> [照l]準<sub>준</sub> 稔<sub>준</sub> 肫<sub>순</sub> [穿j]春<sub>춘</sub> 蠢<sub>순</sub> [神d]盾<sub>순</sub> 術<sub>술</sub> [禾j]求<sub>툇</sub> [審j]蕪<sub>순</sub> 瞬<sub>(순)순</sub> [禪z]蓐<sub>(순)순</sub> 醇<sub>순</sub> 鶉<sub>(순)순</sub> [日j]閏(운)순

과 같이 [운]으로 규칙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개구개음과 합구개음과 운미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핵모음 [w]와는 무관하다. 다만, 諄운 3, 4등이 똑같이 [운]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3등개음은 간접적으로 4 등개음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듯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3등의 경우 핵모음 [w]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iuwn$ 에서 중설개음  $i$ 와 중설핵모음 [w]에 의해 합구개음 [u]가 [+u]로 이동하여 [우]가 된 상태에서 핵모음 [w]에 의해 중설개음  $i$ 가 탈락하지 않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등의 경우는 강한  $i$ 와 합구개음 [u]에 의해 핵모음이 탈락하여  $iuwn$ 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ㄱ]의 음가를 알기 위해서는 만요우가나의 반영례를 보아야 하는데, 真<sup>3</sup>등은

因印,ina 陳ti 珍ti,tinu 仁人Eni 敏minu 隣ri

로, 眞4등은

吉i,iti 吉ki 新si,sina 尽zi 賓嬪必fi 民mi

로, 중고음 이전의 예로 보이는 「Z<sub>0</sub>,oto」 1예 이외에 3, 4등 구별없이 [ɨ]로 반영 되었을 뿐 [ʉ]로 반영된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한 諄운 3, 4등의 경우에도 예가 없기 때문에 역시 [w]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眞3등의 경우 개음 [ɨ]가 있기 때문에 [w]가 [ʉ]를 나타내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sup>34)</sup>. 한편, 諄3등의 만요우가나 예는 없고, 4등에 「駮suru」 1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w]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uwn]의 합구개음 [u]의 반영일 뿐, 핵모음 [w]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만요우가나에 의하면 [ʉ]는 [w]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ʉ]의 음가로 추정할 수 있는 음에는 [u][ɨ][ʉ]가 남는다.

셋째, 虞운이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니혼쇼키』 가요에서 알파군의 경우 설음(ツ・ヅ・ヌ)을 제외한 나머지 [ɨ] 계열에는 虞운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대표운으로 쓰이고 있고, 상대문헌에 쓰인 虞운 55자 중에서 「虞」 자만이

耶麻鵝播爾 烏志賦梅都威底 陶虞毗預俱 陶虞陸屢伊慕乎 多例柯威爾鷄武(山川に 鴛鴦二つ 居て 偶よく 偶へる妹を 誰か率こけむ 『日本書紀』 권25 孝徳紀)

처럼 [ʉ]로 쓰인 예 이외에

空蟬之 命乎惜美 浪爾所濕 伊良虞能嶋之 玉藻苺食(うつせみの 命を惜しみ 波に濡れ 伊良虞  
の島の 玉藻刈り食む 『万葉集』 권1 24번)

처럼 [ɔ甲]으로도 쓰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자가 [ʉ]로만 쓰였다는 점은 [ʉ]의 소리에 虞운자가 가장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虞운은 3, 4등이 각각 [iu] (또는 [iu]) · [iu] (또는 [i u])로 재구되는데, 3등개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ʉ]를 나타내는 대표운으로 쓰인 이유는 1등운에 [u]나 [ʉ]를 핵모음으로 지닌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ɨ]

34) 자세한 것은 키ム·데존(2000, pp.129-136) 참고

개음이 있더라도 3등운인 虞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므로 虞 운자가 대표운이라고 하더라도 [ʉ]의 음가가 [iu]와 같은 이중모음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ʉ]의 음가는 [u]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음위학적 관점에서 볼 때 [u]는 [u][ɥ][u][ɥ]등도 포괄하는 음으로 추정된다. [u]의 예는 魂운의 입성운인 沒운[uɔt]의 반영례를, [ɥ]는 虞운[iu(iu)]·文운[iuən]·諄운[iuwn]등의 실제음을, [ɥ]는 [ɥ]로 추정되는 模운[ɥ]·東원[ɥ] 등의 음을 그리고 [ɥ]는 尤운[i3ɔ]의 실제음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상대 일본어의 우(ウ)의 음가를 [u]로 추정한다.**

## 나오는 말

합구개음을 어떻게 보느냐([w]냐 [u]냐)에 따라 한국 한자음의 해석에 의한 고대 한국어 모음체계의 설명은 본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특히 상대 일본어의 우(ウ)의 음가와 관련성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만일 중고 합구개음을 [w]로 본다면, 만요우가나 자로는 합구운의 자는 「ワ行(ワ·ヰ·ヱ·ヰ)」에 한정해서만 쓰였을 뿐 그 밖의 [ʉ]를 나타내는 데는 쓰이지 못 하고 [u]계열을 나타내는 개구운자만이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구운 이외에도 합구운에 속한 자가 만요우가나자로 쓰였다는 사실은 바로 중고 합구개음이 [u]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u]이므로 해서 상대 일본어 [ʉ]의 음가를 나타내는 자로도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고 합구개음과 [ʉ]의 음가와 밀접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ʉ]가 [u]이었기 때문에 [ɥ]를 지닌 중고음의 운자가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모리야마 타카시는 魂·文韻字가 [ʉ]로 나타나는 예를 근거로 [ɥ]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의 재구음(魂운[uɔn], 文운[iuən])에 의하면 강한 합구개음에 의해 핵모음이 탈락하고 합구개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ɥ]이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상대 일본어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일단락을 짓고자 한다. 다만, [ɥ][ɥ][ɥ]에 대하여는 따로 추정하지는 않았으나, 필자 또한 한국 한자음과 만요우가나자의 반영례와 중고음의 재구 등에 의해 거의 기존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 일본어의 모음체계의 추정음이다.

[ʉ] : [a]([a]~[a])

[ɥ]: [i]

[イ乙]: [i:](단 [i:i:]실도 배제하지 않는다)  
[エ甲] : [e]  
[エ乙] : [ɜ:](단 [ɜ:]를 [ɜ:]와 [ɜe]양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i]는 [e]  
에 가까운 음색이다)  
[オ甲] : [o]  
[オ乙] : [ɔ]  
[ウ] : [u]

그러면, 앞으로 상대 일본어 음운체계의 마지막 작업으로 자음체계에 대하여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박병채(1986)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부. p.109, pp.318-319
-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탐출판사. p.302
- 有坂秀世(1955) 『上代音韻攷』, 三省堂. pp.269-276, pp.383-386
- キム・デソン(1998) 「万葉仮名模韻字のオ列甲類とウ列との両用について」 『福岡大学日

本語日本文学』第8号

- 키ム·데손(1999) 「『中古漢語의 模韻의 音價再構について』 『福岡大学 大学院論集』 第30卷2号
- 키ム·데손(2000) 「『中古漢字音의 再構成 - 韓日資料による 韻母音을 中心に -』 福岡大学.
- 河野六郎(1993) 『河野六郎著作集 第2卷』, 平凡社. pp.122-123
- 上代語辞典編集委員会(1983) 『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 三省堂 pp.890-903
- 藤堂明保(1980) 『中国 語音韻論』, 光生館.
-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塚館 書店. pp.89-93
- 森山隆(1971) 『上代国語音韻の研究』, 桜楓社. pp.232-246
- 北京大学中国语言文学系语言学教研室编(1989) 『汉语方音字汇』, 文字改革出版社. pp.159-162
- 董同龢(1993) 『漢語音韻学』, 文史哲出版社. pp.157-159
- 陸志韋(1985) 『陸志韋語言学著作集(一)』, 中華書局. pp.20-22
- 王力(1991) 『汉语音韵』, 中华书局. p.50
- 严学窘(1990) 『广韵导读』, 巴蜀书社. pp.104-106
- Bernhard Karlgren(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pp.244-248

要 旨

この論文では、中古漢音の合口介音の音價は母音性であったのか、それとも子音性であったのかについて主に韓国漢字音と万葉仮名によって推定をし、そして、上代日本語の「ウ」の音價についての推定を行った。

まず、合口介音については、カールグレンをはじめ、中国と日本の音韻学者らの推定音についての根拠などを韓国漢字音と万葉仮名の反映例に基づいて検討・批判し、その音價は合口性の強い、母音性の[u]で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そして、上代日本語の「ウ」の音價については、次の三つの根拠によって後舌円唇高母音の弛緩音であ

る[u]と推定した。

一、「ウ」を表すのに[ɔ]を持つ「模韻」を使う例があるが、こういうことは『日本書紀』歌謡のα群の歌にも存在している。

二、[ɰ][w]([ɰ]: [u]の中舌母音、[w]: [u]の中舌弛緩母音)などを持つ韻は「ウ」に使われていない。

三、虞韻は、55字の中、ただ1例が「オ」と「ウ」に両用しているだけで、すべて「ウ」を表すのに用いられている。

特に、[ɔ]を持つ「模韻」を使う例があるというのは、「ウ」が後舌円唇狭母音の[u]ではなく、その弛緩音である[u]であることを裏付けていると考えられる。

주제어 : 합구개음, [ウ], 만요우가나, 한국 한자음, 模韻, 虞韻

투 고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11

3차 심사 : 2003. 7. 8

住 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31-402

電 話: 033-532-9940

E-mail : hanbyeol@donghae.ac.kr